

‘기 환(祇桓)’의 이 표기와 한자음의 문제

- 고양 원각사 소장 『능엄경(楞嚴經)』의 자음주(字音注)를 중심으로 -

-

권인한

성균관대, 국어학

1. 머리말



[도판1] 오늘날의 기원정사 <https://ko.wikipedia.org/wiki/기원정사#/media/파일:Jetavana.jpg>

기원정사(祇園精舍; Jetavana-vihāra)는 고인도 16대국 시대 코살라국[拘薩羅國]의 수도 슈라바스티[室羅筏, 舍衛城]에 있던 사찰이다. 이는 석가모니 붓다가 설법을 행한 천축(天竺) 5대 정사(精舍)의 하나로서 ‘기타수급고독원(祇陀樹給孤獨園)’,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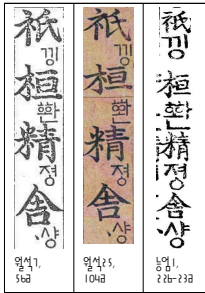
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 ‘기수원(祇樹園)’, ‘급고독원(給孤獨園)’, ‘기원(祇園)’ 등으로 불리며, 한국에서 번역될 때 이들 한역어 외에도 그 이름의 의미를 그대로 풀어서 ‘사밧티의 제타 숲’,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준 체타 장자의 동산’으로 번역되기도 한다.¹⁾



[도판2] 원각사 『능엄경』, 6b

이 글은 [도판2]의 자음주(字音注)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한 것이다. 이 자음주는 고양시 원각사 소장 『능엄경』(2020년 1월 6일 보물 제2056호로 지정: 권1~2 낙질) 권1: 6장 뒷면 6행에 등장하는바, 그 내용은 “祇[音企]桓[音院]” 즉, “기환(祇桓)”의 한자음을 “기원”으로 읽어야 함을 지정한 것이다.

그런데 『월인석보』(1459), 『능엄경언해』(1461) 등 세조대에 간행된 언해서들에 “기환(祇桓)”의 한자음이 동국정운식의 “깁환”으로 주음(注音)되어 있음으로써([도판3] 참조) 위의 자음주와의 차이가 현격함이 주목된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또한 그러한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의 여러 궁금증들이 생기게 된다.



【사진】『祇桓精舍』의 찰상

본고는 불교에 문외한인 필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러한 궁금중 해소에 1차적인 목표를 두면서 각종 문헌들에서 ‘기환(祇桓)’의 쓰임을 살펴보면서 원각사본 『능엄경』에 문제의 자음주를 달게 된 배경을 한자음의 관점에서 추적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의 논의들²⁾에서 쟁점으로 되고 있는 원각사본 『능엄경』과 간경도감본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1462)의 관계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필자의 우견(愚見)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기원(祇園)’ 이표기와 한자음의 관계

【祇園】(地名) 又作祇洹, 祇桓。祇園為祇樹園, 祇陀園, 祇樹給孤獨園之略。洹桓二字, 經論互用。……(‘기원(祇園)’은 지명으로 ‘기원(祇洹)’ 또는 ‘기환(祇桓)’으로도 쓴다. ‘기원(祇園)’은 ‘기수원(祇樹園)’, ‘기타원(祇陀園)’,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의 준말이다. 「洹」, 「桓」 두 글자는 경론(經論)에서 서로 넘나들며 쓴다[互用]. ……)

【祇樹】…… 慧琳音義十曰: 「祇樹, 梵語也, 或云祇陀, 或云祇洹, 或云祇園, 皆一名也。……(…… 『해림음의』 권10에서 이르기를, “‘기수(祇樹)’는 범어로서 ‘기타(祇陀)’ 또는 ‘기원(祇洹)’, ‘기원(祇園)’이라고 하는데, 모두 동일한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³⁾

이상 『불학대사전(佛學大辭典)』에서의 두 항목의 기술을 보면,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 Jetavānāthapi)’ 즉,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준 Jeta 장자(長者)의 동산’의 준말인 ‘기원(祇園)’이라는 단어의 이표기가 ‘기원(祇洹)’, ‘기환(祇桓)’임을 알 수 있는데, 우리의 “기림사(祇林寺; 643년 원효 중창시 기존의 ‘임정사(林井寺)’를 ‘기림사’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전해진다⁴⁾)”의 ‘기림’도 동일 어원임을 말할 수 있다.

	祇園(기원)	祇洹(기원)	祇桓(기환)
통합대장경(원문)	65	475	246
한국불교전서(〃)	18	8	14

- 3 -

위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간행의 『역주월인석보』 권25(상)에 나오는 한 부분으로서 ‘기환(祇桓)’에 대한 각주에서 “‘기원정사(祇園精舍)’의 ‘기원(祇園)’을 ‘기원(祇洹)’으로 쓴 것도 있으므로, 이를 따라 쓴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함”이라는 잘못된(?) 기술을 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그만큼 ‘기원(祇園)’의 이표기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정확하였음을 잘 드러내준다고 하겠다.

이상의 고찰로써 한국인에게 친숙한 ‘기원(祇園)’이라는 단어의 이표기로 ‘기원(祇洹)’과 ‘기환(祇桓)’이 있음이 확인된 이상, 다음의 관심 이들 이표기가 나타난 배경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것이다.

우선 ‘기원(祇園)’과 ‘기환(祇桓)’은 다음의 협주 및 사전 뜻풀이를 통하여 「園」≡「桓」의 유의(類意)관계에 의한 이표기 관계로 볼 수 있다.

①祇桓精舍에 大衆이 모뎃거늘 舍利弗이 듣즈븨니[祇_는 祇_施]오 桓은 수프리니 祇_施樹]라 호미 혼가지라]<월석7, 56a>

②菩薩이 城 밧 甘蔗園에[城은 자시라. 甘蔗는 프리니 시몬 두서 히자히 나딕 대 곧고 기리 열 자 남죽히니 그 汁으로 粿糖을 밍_는니라. 園은 東山이라.] 精舍 밍굴오 [精舍는 조심_는 지비라.]<월석1, 6a>

③ 동산 「명사」

「1」 마을 부근에 있는 작은 산이나 언덕.

「2」 큰 집의 정원에 만들어 놓은 작은 산이나 숲.

「3」 행복하고 평화로운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즉, 「桓」자의 훈 ‘수풀’과 「園」자의 훈 ‘동산’ 간에 일정한 유의관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동산’에 대한 뜻풀이 「2」를 통해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다른 이표기 ‘기원(祇洹)’은 이러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洹 [huán ㄏㄨㄢˊ]

[《廣韻》胡官切, 平桓, 匣。] [《廣韻》雨元切, 平元, 雲。]

1. 見“洹洹”。2. 水名。…<左傳·成公十七年>: “初, 聲伯夢涉洹。” 參見“洹水”。

위의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의 뜻풀이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물 이름”의 훈을 지니는 「洹」자는 「園」·「桓」과는 의미상의 관련성을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洹」·「園」·「桓」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공통성의 인자(因子)를 찾아야 할 것인바, 그것은 위의 「洹」자의 『광운』 반절(反切)이 “胡官切”이고, 이는 「桓」자의 한자음 “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반절이라는 점에서 그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세 글자의 한자음을 조사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園」: MC. **hjwon**// OC. *C.g^wa[n]<Baxter-Sagart>, ***g^wan**<Zhengzhang>

「洹」: MC. **hjwon**, **hwan**//

OC. ---<Baxter-Sagart>, *g^wa : n, ***g^wan**<Zhengzhang>

「桓」: MC. **hwan**//

OC. *[g]^war, *f^war<Baxter-Sagart>, *g^wa : n<Zhengzhang>⁶⁾

위에서 보면, 세 글자의 동음성(同音性) 내지 유음성(類音性)의 기반 음계가 중고음(MC)보다는 상고음(OC)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고음으로는 「園」↔「洹」, 「洹」↔「桓」 각각의 동음성은 확인되지만, 「園」↔「桓」 사이의 동음성은 찾아지지 않는 반면, Zhengzhang鄭張尚芳의 상고음 체계에서 보면, 「園」↔「洹」, 「洹」↔「桓」 각각의 동음성도 확인될 뿐만 아니라 「園」↔「桓」 사이에도 *g^wan vs. *g^wa : n의 차이 즉, 성모에서의 구개수(口蓋垂=小舌; uvular) 유성과열음(/g-/>MC. 雲母) vs. 연구개 유성과열음(/g-/>MC. 匣母)의 차이 및 운모에서의 단음 vs. 장음의 차이로 음성적으로도 그리 멀지 않은 차이를 보이므로 세 글자는 결국 상고음을 기반으로 한 유음(類音)관계의 이표기자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범어 Jetavana에 대응되는 한역어인 ‘기원(祇園)’, ‘기원(祇洹)’, ‘기환(祇桓)’은 상고음적 유음관계에 기반한 이표기들로 결론지어도 좋을 것이다.

3. “桓[音院]” 자음주의 연원 추적

이제 원각사본 『능엄경』 권1 소재(所載)의 “桓[音院]” 자음주로 눈을 돌려 이 자음주의 연원이나 배경에 대하여 추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원각사본 『능엄경』의 자음주 작성자가 참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문헌으로 (1) 『능엄경』 주요 주석서(송·원대)들에서의 음석(音釋), (2) 『동국정운(東國正韻)』(1447), (3)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慧琳音義)』(807), (4) 『광운(廣韻)』(1008)·『집운(集韻)』(1039) 등의 운서로 상정(想定)하고 이들에서 위의 자음주에 상응/일치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찾아볼 것이다.

(1) 『능엄경』 주석서들에서의 음석 및 운서음

『능엄경』의 주석서로는 ①요해(要解; 『大佛頂首楞嚴經要解』, 宋 戒環解, 1127), ②의해(義海; 『首楞嚴經義海』, 宋 咸輝入注, 1172), ③집주(集註: 『首楞嚴經集註』, 宋 思坦集註, 1276), ④회해(會解; 『大佛頂首楞嚴經會解』, 元 惟則會解, 1342)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능엄경』 경문에서의 난해자들에 대한 음석(音釋)을 달고 있는데, 이것이 『능엄경언해』의 각권 말에 그대로 또는 가감(加減) 수정을 가하여 전재(轉載)되어 있다.⁷⁾ 이들은 원각사본 『능엄경』의 자음주 작성자가 참조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할 것인바, 졸고(1997)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桓 胡官切	<要C:0102>	桓 胡官切	<要K:0102>
		桓 胡官切	<會K:0102>

위의 색인은 좌측에 중국본의 음석을(약호: 要C, 義C, 會C), 우측에는 『능엄경언해』(목판본 기준)에서의 음석을(약호: 要K, 義K, 會K) 배치해 비교의 편의를 꾀한 것이다(출전은 <판본 약호:○○(권차)○○(음석자의 차례)>임). 위에서 보면, 원각사본 『능엄경』의 자음주 작성자가 「桓」자

에 대한 자음 정보를 주석서의 음식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면, 중국본이든 한국본이든 “「桓」 胡官切”의 반절만 찾아지므로 이들에게서 “L환”이라는 자음밖에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혹여 해당 자음주 작성자가 운서음을 확인해보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桓① [huán ㄏㄨㄢˊ]

[《廣韻》 胡官切, 平桓, 匣。]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

이는 아마도 『능엄경요해』의 찬자인 계환(戒環) 스님이 음식 작성을 위해 『광운』의 반절음을 그대로 인용한 결과일 것으로 추측된다. 어느 쪽이든 이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桓」자의 자음은 원각사본 『능엄경』 자음주와는 거리가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동(同) 자음주 작성자는 『능엄경』 주석서의 음식 및 운서음을 참조하지 않았거나,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각사본 『능엄경』의 자음주 “桓[音院]”의 연원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 『동국정운(東國正韻)』

다음으로 자음주 작성자가 『동국정운』을 참조하였다면, “祇[音企]桓[音院]”에서의 피자음주자(被字音注字)와 자음주자 사이의 일치 내지는 밀접한 상관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될 것이다.

①「祇」: 𣎵 ㄱ_平

「企」: 𣎵 ㄱ_上

②「桓」: 𣎵 ㄱ_平

「院」: 𣎵 ㄱ_去

cf)「洹」: 𣎵 ㄱ_平 又 𣎵 ㄱ_平

「園」: 𣎵 ㄱ_平⁸⁾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피음주자(「祇」, 「桓」)와 음주자(「企」, 「院」) 사이에는 「祇」↔「企」사이의 운모의 일치 외에는 성모, 운모 및 성조상의 확인한 불일치만 나타날 뿐이어서 자음주 작성자가 『동국정운』을 참조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음주자 「桓」의 이표기자인 「洹」, 「園」의 동국정운음을 확인해

보면, 「院」(·원_去)↔「洹」·「園」(원_平) 간에 성조를 제외한 성모·운모상의 일치를 볼 수 있음은 혹여 자음주 작성자가 ‘기환(祇桓)’이라는 표기 대신에 ‘기원(祇園)’ 또는 ‘기원(祇洹)’이라는 표기에 익숙했을(또는 호감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3)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慧琳音義)』

마지막으로 자음주 작성자가 『일체경음의』를 참조하였을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그 경우 ‘기환(祇桓)’ 관련 어휘들에 대한 검색이 우선적일 것이다.

①祇樹, 梵語也, 或云祇陀, 或云祇洹, 或云祇園, 皆一名也. 正梵音云誓多, 此譯為勝, 波斯匿王所治城也. 太子亦名勝, 給孤長者, 就勝太子, 抑買園地, 為佛建立精舍. 太子自留其樹, 供養佛僧, 故略云祇樹也.(‘기수(祇樹)’는 범어로서 ‘기타(祇陀)’ 또는 ‘기원(祇洹)’, ‘기원(祇園)’이라고 하는데, 모두 동일한 이름이다. 올바른 범음(梵音)은 ‘誓多=Jeta’인데 이는 ‘승’(勝)이라는 뜻으로 파사닉왕(波斯匿王)이 다스리던 성(城)이다. 태자의 이름도 ‘승’(勝)인데, ‘급고장자(給孤長者)’란 승 태자가 원지(園地)를 억매(抑買)하여 부처님을 위하여 정사를 건립하였음을 말한다. 태자 스스로 그 숲에 머물러 불승께 공양하였으므로 줄여서 ‘기수(祇樹)’라고 한다.) <『金剛般若波羅蜜經』 慧琳音>

②祇洹胡官反, 梵語彼方精舍名(‘기원(祇洹)’의 「洹」자는 ‘胡官反’이다. 범어로는 그 지방(?) 정사(精舍)의 이름이다.) <『大寶積經』 第一百八卷 慧琳音>

③勝氏樹, 謂祇陀林, 或云祇洹, 並訛也. 正言逝多, 憍薩羅國波斯匿王之子也.(승씨의 수풀을 ‘기타림(祇陀林)’, 또는 ‘기원(祇洹)’이라 하나 모두 잘못이다. 바르게는 ‘逝多=Jeta’인데, 코살라국(憍薩羅國) 파사닉왕의 아들이다.) <『法鏡經』 上卷 玄應音>

④祇洹猶是祇陀, 此言訛也. 應云移多, 或言逝多, 此云戰勝, 婆那 此云林, 名為勝林. 移音是奚反(‘기원(祇洹)’은 ‘기타(祇陀)’라고 하나, 이는 잘못이다. 현응은 말한다. ‘移多=Jeta’ 또는 ‘逝多=Jeta’는 전승(戰勝)의 뜻이고, ‘婆那=vana’는 숲이라는 뜻이니, 이름하여 승씨의 숲[勝林]이라 한다. 「移」자의 음은 ‘是奚反’이다.)<『阿毘曇毘婆沙論』 第七卷 玄應音>

이상은 CBETA 漢文大藏經 사이트(<https://tripitaka.cbeta.org/>)에서 제공하는 『일체경음의』(T54n2128) 파일로 ‘기원(祇園)’ 또는 ‘기원(祇洹)’에 대한 검색 결과이다.

여기서 우선 주목되는 점은 ‘기환(祇桓)’이라는 표기가 『일체경음의』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하여 ‘기원(祇洹)’이라는 표기에 대한 정격성 여부 판단에서 혜림과 현응의 태도에 미묘한 차이가 보인다는 점도 주목된다. 즉, ①에서 혜림은 비록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기원(祇園)’, ‘기원(祇洹)’이 ‘기수(祇樹)’의 동의어임을 인정한 반면, ③, ④에서 현응은 ‘기원(祇洹)’, ‘기타(祇陀)’에 대해 잘못된 점을 강조하면서 ‘체다(移多)’, ‘서다(逝多)’가 Jeta에 대한 올바른 표기임을 주장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이 그것이다. 만약 원각사본 『능엄경』의 자음주 작성자 위의 기록들을 보았다면, 그는 『능엄경』 저경(底經)에 등장하는 ‘기환(祇桓)’이라는 표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원(祇洹)’이라는 표기도 논란이 된다는 정도로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을 듯하다. 앞서 자음주 작성자가 ‘기환(祇桓)’이라는 표기 대신에 ‘기원(祇園)’ 또는 ‘기원(祇洹)’이라는 표기에 익숙했을(또는 호감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말한 바 있거니와, 만약 위의 추정이 사실에 가깝다면, 자음주 작성자가 최종적으로 올바른 표기로 취할 수 있는 것은 ‘기원(祇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桓[音院]”이라는 특이한 자음주를 단 배경이 되었으리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의 기록들에 등장하는 유일한 자음주는 ②에서의 “(祇)「洹」胡官反”인바, 이는 앞선 『동국정운』에서 확인한 「洹」자의 우음(又音)과 일치하는 것이나, 문제는 ‘기원(祇洹)’이라는 표기의 문제점을 원각사본 『능엄경』 자음주 작성자가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②의 자음주는 원각사본 『능엄경』 자음주의 작성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체경음의』의 다른 항목들에서 「桓」자의 쓰임을 축자적(逐字的)으로 살펴, 특히 「桓」자에 대한 자음주나 「桓」자가 다른

자음주에 쓰인 경우 등을 조사하여 혹시라도 원각사본 『능엄경』 자음주와 모종의 관련성이 찾아지는지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① 「桓」자의 자음주 또는 다른 글자의 직음주로 쓰인 예

: ---// 「菴 音桓 <『大乘方等要慧經』 헤림>·<『佛說報恩奉盆經』 헤림>·<『佛性論』 1 현웅>·<『佛說分別善惡所起經』 헤림>, 「桓 音桓 <『華嚴經』 58>·<『開元釋教錄』 3 헤림>·<『法顯傳』>, 「莞 工端反又音桓 <『般若燈論』 10, 현웅>·<『辯正論卷』 30>, 「澆 音桓 <『經律異相』 17>, 「桓 音桓 <『續高僧傳』 16>, 「莞 音桓 <『廣弘明集』 3, 4>

② 「桓」자가 다른 글자의 반절 상자(上字)로 쓰인 예

: 「澆 桓管反 <『大寶積經』 109>, 「換 桓貫反 <『第一義法勝經序』>, 「澣 桓管反 <『中論』 4>·<『根本說一切有部大毘婆沙論』 1>·<『西域記』 2>·<『高僧傳』 7>, 「緩 桓管反 <『阿毘達磨大毘婆沙論』 177>, 「澣 桓挽反 <『釋迦譜序』 2>·<『釋迦氏略譜』 1>, 「澆 桓挽反 <『經律異相』 17>, 「澣 桓管反 <『高僧傳』 13>

③ 「桓」자가 다른 글자의 반절 하자(下字)로 쓰인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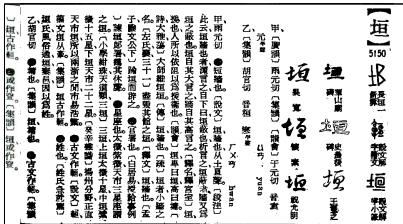
: 「爨 力桓反 <『大般若波羅蜜多經』 521>, 「爨 盧桓反 <『新譯仁王經序』, 헤림>·<『金光明經』 2>·<『經律異相』 1, 6>, 「寬 款桓反 <『大寶積經』 109>, 「觀 古桓反 <『維摩詰所說經』 卷上8 현웅>, 「團 奪桓反 <『金光明經』 2>, 「剋 烏桓反 <『月燈三昧經』 3>·<『賢愚經』 1 현웅>·<『道地經』 1 헤림>·<『續高僧傳』 10>, 「剋 五桓反 <『太子墓魄經』 현웅>·<『菩薩本行經』 上 현웅>·<『閻羅王五天使者經』 1 헤림>, 「𧈧 五桓反 <『佛說陀鄰尼鉢經』 헤림>, 「湍 土桓反 <『大方便佛報恩經』 1 현웅>·<『攝大乘論』 4 현웅>·<『法句經』 上 현웅>, 「剋 桓桓反 <『優婆塞戒經』 2 헤림>·<『善見律』 11 현웅>, 「𧈧 苦桓苦昆二反 <『瑜伽師地論』 26 현웅>·<『阿毘曇毘婆沙論』 21 현웅>·<『阿毘達磨俱舍論』 22>, 「湍 吐桓反 <『瑜伽師地論』 33 현웅>, 「𧈧 都桓反 <『寂志果經』 현웅>, 「𧈧 土桓反 <『十誦律』 1>, 「攢 藏桓反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律』 20>, 「搏 殂桓反 <『阿毘達磨大毘婆沙論』 133>, 「搏 徒桓反 <『阿毘達磨俱舍論』 11>, 「狻 先桓反 <『只音阿毘達磨順正理論』 54>, 「𧈧 口桓反 <『雜阿毘曇心論』 8 현웅>, 「揣 知桓反 <『續高僧傳』 15>, 「冠 管桓反 <『廣弘明集』 7>

④기타

：鳩垣諸經或作鳩洹或作仇桓皆梵言訛也。此譯云大身。〈『道行般若經』 10〉，鳩洹諸經或作鳩垣或作仇桓皆梵音訛也。此譯云大身鬼也。〈『正法花經』 2 현응〉

이상 ‘桓’자의 쓰임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로 보면, 『일체경음의』에서 “桓[音院]”이라는 원각사본 『능엄경』의 음주를 뒷받침해줄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거나,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연결고리에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桓」자에 대한 자음주를 찾을 수 없음이 그 첫 번째 이유가 되거니와, ②, ③의 반절 상·하자의 쓰임에서 특별히 문제시될 만한 예가 없기 때문이다. ②에서의 피자음주자는 모두 감모(匣母)를 공유하고 있고, ③에서의 피자음주자도 모두 환모(桓母)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①의 직음주의 예 중 「 완」(胡管切[上緩匣]~古緩切[上緩見]), 「관」(古滿切[上緩見])의 예에서는 성조 및 성모상의 불일치가 보임으로써(「桓」: 胡官切[平桓匣]) 직음주자로서의 불완전성은 찾아지지만, 원각사본 『능엄경』 자음주와는 운모상의 차이가 있어서(桓/난/ vs. 線/견/) 이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예들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파4] 『조판대사저』 「垣」자 항목

「垣」자의 경우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 음계는 ㉠兩元切[平元雲], ㉡胡官切[平恒匣]인데, ㉢의 음이 「桓」자와 일치함으로써 직음주로서의 문제점은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도판4]에서 보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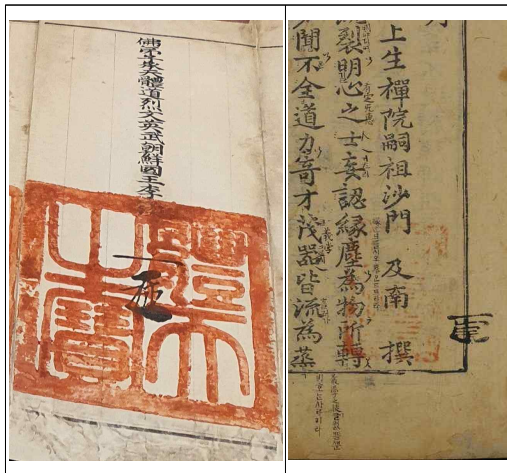
가운 점이다(단, 「園」(평성) vs. 「院」(거성) 간의 성조 차이로 완전한 연결고리는 되지 못함에 주의). 이상에서 보듯이 만약 원각사본 『능엄경』 자음주 작성자가 『속고승전』에서의 “「𣵵」音𣵵”의 직음주를 보았다면, ‘기환(祇𣵵)’의 ‘𣵵’자에 대한 자음주를 “音院”으로 달 수 있었던 배경이 될 수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도 있다. 다만, 100권이냐 되는 『일체경음의』에 대한 검색 작업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버거운 일 중의 하나이거니와, 선초(鮮初)의 인사들에게 이 정도의 검색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에 우리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점에서 불안한 구석이 없지는 않다.

요컨대 이 장에서는 원각사본 『능엄경』 권1 소재(所載)의 “𣵵[音院]” 자음주의 연원이나 배경에 대하여 추적해보고자 (1) 『능엄경』 주요 주석서(송·원대)들에서의 음석(音釋), (2) 『동국정운(東國正韻)』(1447), (3)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慧琳音義)』(807), (4) 『광운(廣韻)』(1008)·『집운(集韻)』(1039) 등의 운서에 위의 자음주에 상응/일치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찾아본 결과, 『속고승전』에서의 “「𣵵」音𣵵”의 직음주를 제외하고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정리해도 좋을 것이다. “「𣵵」音𣵵”의 직음주도 성조상의 불일치가 보일뿐더러 당시의 검색 능력으로 비추어 이러한 추정이 무리할 것일 수도 있어서 불완전한 연결고리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각사본 『능엄경』에서의 “𣵵[音院]” 자음주의 연원에 대해서는 “「𣵵」音𣵵”의 직음주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기환(祇𣵵)’이나 ‘기원(祇涇)’ 대신에 ‘기원(祇園)’이라는 이표기에 대한 선호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완전하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 대해 혹자는 「院」자에 ㉠“王眷切[去線雲]” 외에 「𣵵」자와 동일한 ㉡“胡官切[平框匣]”이라는 음이 있어서 “𣵵[音院]”이라는 자음주의 연원이 아닐까 하는 문제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의 음이 문헌에서의 용례를 찾을 수 없는 운서음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낮게 본 것임도 밝혀둔다.

4. 원각사본 『능엄경』과 『능엄경언해』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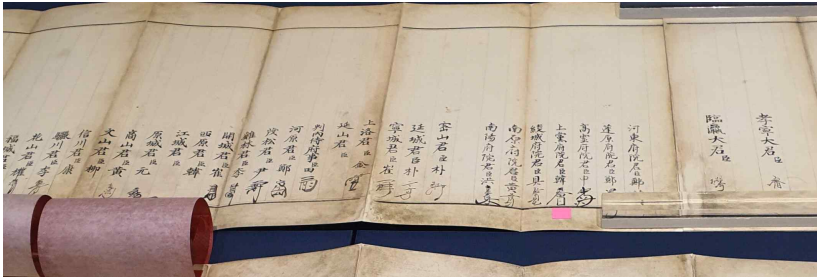
이제 지금까지의 고찰을 토대로 최근 논의들에서의 쟁점이 되고 있는 원각사본 『능엄경』과 『능엄경언해』와의 선후 관계에 대해 우견을 피력할 차례가 되었다.



[도판5] (좌) 세조 수필 『상원사 중창권선문』 © 권익환 2020.02.9 | (우) 원각사 『능엄경』 권: 1a

우선 초기에 약간의 논란이 되었던 원각사 『능엄경』 권1의 첫장에 있는 수결(手決)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부터 논의를 시작해보자. 한때 필자가 세조의 수결일 가능성을 생각해보았으나, [도판5]에서 보듯 『상원사 중창권선문』에 남아 있는 세조의 수결과 비교해보면, 양자간 차이

가 뚜렷해 그 가능성은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수결의 중간 부분에서 필선의 차이가 보일 뿐만 아니라, 세조의 수결은 옆으로 굽는 획의 종필(終筆)을 오른쪽으로 흐르게 뺀어 쓰는 파책(波磔)이 강하게 느껴지는 반면, 원각사 『능엄경』의 수결은 그러한 기운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각사 『능엄경』 수결의 주인공은 일단 세조는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가리기에는 현재 남아 있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듯하다. 아래의 [도판6]에 있는 효령대군을 비롯한 『상원사 중창권선문』에 남아 있는 제신들의 수결과 비교해보아도 특별히 비슷해 보이는 수결이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원각사본 『능엄경』 수결 좌측에 있는 인장도 현재로서는 판독이 어려워 더 이상의 논의는 불가능할 듯하다.



[도판6] 『상언사 중형권서문』에서의 제신(諸臣)의 수결 양상 ©권인환 20200229

덧붙여 원각사본 『능엄경』의 수결이 이 책의 소장자의 것인지, 아니면 이 문헌의 본문 및 난외에 구결자, 한글, 한자, 부호(순서, 교정) 등으로 된 필사 작업의 책임자의 것인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다.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을 것이나, 문헌 소장자의 장서인을 대신한 수결이 흔치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원각사본 『능엄경』의 수결의 주인공이 국왕이 아닌 문헌 속 필사 작업의 책임자급이라면, 각종 필사 작업의 결과는 최종 언해 과정에서 수정될 수도 있는 운명이었던 것으로 정리해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 하정수(2022b: 229-230)에서 『능엄경언해』 권10 말미 어제발(御製跋)에 보이는 언해 순서를 밝힌 것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세종이 1438년에 『능엄경』을 읽어보고 나서 1449년에 수양대군에게 번역을 명함.
- ② 세조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번역을 못하다가 1461년 석가의 분신사리 100여 개가 나타난 일과 효령대군의 권유로 구결을 달고 언해 사업 착수.
- ③ 한계희(韓繼禧), 김수온(金守溫) 등에 명하여 구결에 따라 번역하게 하고 신미(信眉) 등의 절정을 받게 함.
- ④ 박건(朴健), 윤필상(尹弼商), 노사신(盧思愼), 정효상(鄭孝常), 정빈한씨(貞嬪韓氏) 등이 번역 원고의 수정과 교정 작업에 참여함.
- ⑤ 영순군(永順君) 부(溥)가 예문을 일정하게 함.
- ⑥ 조변안(曹變安)과 조지(趙祉)가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표기함.

- ⑦ 신미(信眉), 사지(思智), 학열(學列), 학조(學祖) 등이 번역을 바로잡음.
- ⑧ 세조가 이루어진 번역을 보고 확정함.
- ⑨ 전언(典言) 조씨두대(曹氏豆大)가 세조 앞에서 번역을 읽음.

다시 원각사본 『능엄경』에서의 “祇[音企]桓[音院]”의 자음주 문제로 돌아가보면, 이 자음주가 최종 『능엄경언해』에서 반영되지 않았음은 위의 언해 과정 중 ④번역 원고의 수정과 교정 작업에서 또는 ⑥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과정에서 해당 자음주가 거부되었음을 뜻할 것이다. 아마도 ④번 과정에서 수정 내지 교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능엄경』 저경에서의 “祇桓”이라는 표기가 인정되는 한, “桓[音院]”의 자음주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⑥번 과정에서는 수정·교정된 원고에 따라 기계적으로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달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원각사본 『능엄경』이 간경도감본 『능엄경언해』의 밑 작업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祇[音企]桓[音院]”의 자음주만으로는 그 선후 관계에 대하여 어떤 결정적인 언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한 다른 단서를 찾는 작업은 향후의 원고로 미루고자 한다.

ihkwon@skku.edu

주

- 1)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기원정사” 항목 요약 정리.
- 2) 정재영·안대현·하정수(2016), 「조선 초기 『능엄경』 석독구결의 발견과 그 의의」, 개교 110주년 기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구축 사업의 실효와 지향’ 세미나 발표논문집,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하정수(2022a), 「고양 원각사 소장 보물 제2056호 능엄경의 서지(書誌)와 판본(版本) 연구」, 제61회 구결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원각사 소장 능엄경의 종합적 고찰’, 구결학회, 52-70, 하정수(2022b), 「고양 원각사 소장 『능엄경』의 서지(書誌)와 판본(版本) 연구」, 『구결연구』 49, 203-235, 홍윤표

- (2022), 「원각사 소장 능엄경의 어문생활사적 특징」, 상동 발표 자료집, 72-97, 정우영(2022), 「원각사 소장 《능엄경》 한글 표기의 표기사적 위치」, 상동 발표 자료집, 98-107, 이병기(2023), 「원각사본 『능엄경』과 『능엄경언해』의 비교」, 『구결연구』 50, 229-252 등.
- 3) 이상 維基文庫(<https://zh.wikisource.org/zh-hans/Wikisource>) 『佛學大辭典』의 ‘祇園’, ‘祇樹’ 항목 참조.
 - 4) <https://ko.wikipedia.org/wiki/기림사>.
 - 5) 「祇」: MC. gje// OC. *[k.d]e<Baxter-Sagart>, *ge<Zhengzhang>
「祇」: MC. tsyie// OC. ---, *tjil<Zhengzhang>
 - 6) 이상 wiktionary(<https://en.wiktionary.org/wiki/Wiktionary>)에서의 검색 결과임(주 5)도 동일함). ※MC: 중고음, OC. 상고음.
 - 7) 자세한 것은 권인한(1997), 「한·중 능엄경 음식의 비교 색인」, 『울산어문논집』 12,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참조.
 - 8) 이상 건국대학교출판부(1973), 『동국정운 全』에서 검색한 결과임.